

고용위기 극복 나선 영광군, 일자리 6624개 만든다

올해 458억 투입 공공·민간부문 등 4대 핵심분야 98개 사업 실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채용·청년드림업 321프로젝트 등 추진

영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광군은 최근 '일자리창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공공부문 6254명, 민간부문 370명 등 총 66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고용확대', '맞춤형 인력양성', '민간일자리 창출' 등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영광군은 사업비 458억원을 투입해 군민 체감형 직·간접 일자리 6624개를 만들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채용, 영광사랑상품권 홍보 전문요원 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테마식물원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3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

대 실시한다.

취업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한 구인·구직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희망플러스 통장 등 13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창업업을 연계한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드론전문가 양성 등 12개 사업도 진행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분야는 30개 사업을 나눠 추진된다.

청년창업단지 조성, 청년 드림업 321 프로젝트,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광군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우수상'과 전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



영광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시상금 9000만원을 받았다. (영광군 제공)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고용 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창

출사업을 부서별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 현대영농조합법인 대구에 양파즙 200박스 기증

무안 현대영농조합법인이 최근 대구시에 양파즙 200박스를 기부했다. <사진>

현대영농법인 김천중 대표는 "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양파로 만든 건강에 좋은 즙"이라며 "대구시민들이 양파즙을 마시고 건강을 챙겨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기부받은 후원물품을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 흥농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영광군, 흥농읍 활성화사업 추진 57억원 들여 커뮤니티센터 신축

영광군이 57억원을 들여 '흥농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흥농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비롯해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지난해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57억원이 투입되는 '흥농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흥농읍 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연면적 1049㎡ 규모로 다목적강당과 북카페, 지역홍보관 등을 갖춘다. 영광군은 이밖에 포켓 주차장과 테마 소공원 조성,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포함된 흥농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중심거점 기능 회복을 통해 도심에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172억 긴급 투입 '민생경제 살리기'

취약계층 생활비·경안자금 등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무안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등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코로나19 방역장비·물품 구입,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과 자체사업인 경영안정자금 등 총 172억원으로 편성된다.

특히 무안군이 자체 재원 50억원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0여 업체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안군, 흑산도·가거도 등 철새 먹이 경작면적 확대

신안군이 철새 이동경로인 흑산도에 철새먹이 경작지를 확대해 조·수수 등을 재배한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 일대에서 철새먹이 경작 재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철새에게 먹이와 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김산 군수 등 무안군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세부적으로 아동보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비 54억원, 아동 특별 돌봄 사업 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원 등 94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해 소상공인 공공

요금 9억원, 경영안정자금 50억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3억원 등 74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서는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등 총 4억원 가량 소요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있다.

지난해까지는 흑산 본섬에서만 40가구가 3만 4078㎡를 경작했던 것을 올해는 6500만원을 들여 가거도, 만제도, 태도, 대둔도, 영산도 등 인근 섬까지 넓혀 4만1660㎡를 경작한다.

조, 수수 재배가 끝나면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찾아오는 월동조류를 위해 겨울배추(봄동) 등을 심어 먹이로 공급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찾아가는 하수행정' 호평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신안군이 '찾아가는 하수행정'으로 공공서비스 복지 분야 '서비스만족 대상'을 차지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섬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하수행정'을 펼쳐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신안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희망이 샘솟는 1004심 신안'을 핵심 국정방침으로 정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맞춤형 교통복지 ▲세계적 해양생태 중심의 1004심 신안건설 ▲윤택하고 편안한 복지정책 실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건설 등 살기좋은 신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찾아가는 하수행정 서비스'는 이물질로 인해 하수배관이 막혀 하수역류 등 민원 발생때 군에서 하수배관을 세척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소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